

아이들을 위한 마을만들기

# 당진 수다박스 2호점

## 윤여갑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랫폼 대표

### 개요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05번지 외 2필지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1,178.00m <sup>2</sup>
건축면적	485.54m <sup>2</sup>
연면적	485.54m <sup>2</sup>
규모	지상 1층
높이	4.94m
건폐율	41.22%
용적률	41.22%
구조	일반철골구조+중목구조
구조설계	터구조
설계	윤여갑(설계 및 감리), 정효경(건축행정)
설계담당	김덕진, 차난영, 임승윤
시공	(주)천지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태창전기설계사무소
설계기간	2021.3.~2021.12.
시공기간	2022.3.~2023.6.
공사비	약 21억 원
건축주	당진시



수다박스 2호점 전경



청소녀카페 2호점

수다박스

FORAGE



햇살 따스한 어느 겨울날 정신없이 뛰어놀던 골목길, 쉬는 시간에 한없이 시끌벅적한 복도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쓰라고 정의 내린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 복도와 골목길을 더 좋아한다. 하고 싶은 놀이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을 언제나 좋아한다. 이에 2층 규모를 1층 규모의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확보된 여유로운 공용공간을 모두 골목길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쪽의 골목길, 서로 다른 마감재와 높이의 건물들은 풍성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길 건너에서 바라본 수디박스 2호점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마을



© 2018 R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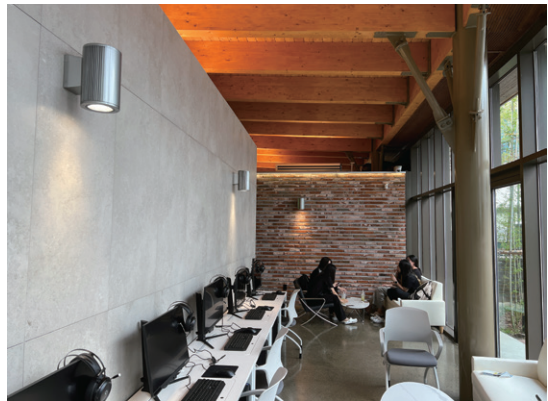


© 2018 RHH



© 2018 RHH

상 집과 골목길들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위한 마을  
 하 아이들을 위한 마을의 집들



상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마을의 골목길  
 하·좌 북적이는 간식카페의 모습  
 하·우 PC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상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진입마당  
 하·좌 수다벅스 2호점의 확장되는 공간  
 하·우 담장과 건물 사이에 있는 놀이마당



수다벽스는 그 이름처럼 하루 200여 명의 학생이 하교하면서 들르는 ‘참새방앗간’이 되었다. 프로그램 박스 사이 골목이 아이들로 붐빈다. 학원을 가기 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머물 곳이 생겼다. 주말이면 오전에는 수다벽스 1호점, 오후에는 2호점에 간다고 지인의 입을 통해 들었다. 채운동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생기가 넘친다.



© 2015 HFC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생기 넘치는 마을

##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감응(感應) - 정기용 건축전, 2010.11. 일민미술관).”

공공건축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의 무주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도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방송사(MBC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와 시민단체(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함께 지역 곳곳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건축가 사무실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면서, 공공건축의 가치를 깨달아 가고 있었다.

당진에서 공공건축가로 활동한 4년과 총괄건축가로 일한 1년, 모두 5년의 시간 동안 함께한 것이 당진 수다박스 2호점(당진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센터) 프로젝트이다. 2024년 인구 17만을 넘어선 당진시는 성장하는 도시이다. 하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원도심인 채운동의 쇠퇴는 어느 중소도시와 다를 바 없었다. 초·중·고교 5곳이 인접해 있지만 주거 인구와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도시(채운동-대상지)는 금세 적막해진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쇠퇴의 속도를 늦춰 보려는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당진시 관계자는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공간과 건축물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마을 만들기: 원도심을 위한 새로운 시작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공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커뮤니티 거점시설의 사업 방향과 사업비 등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공가는 철거되어 흔적도 없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고 어색한 공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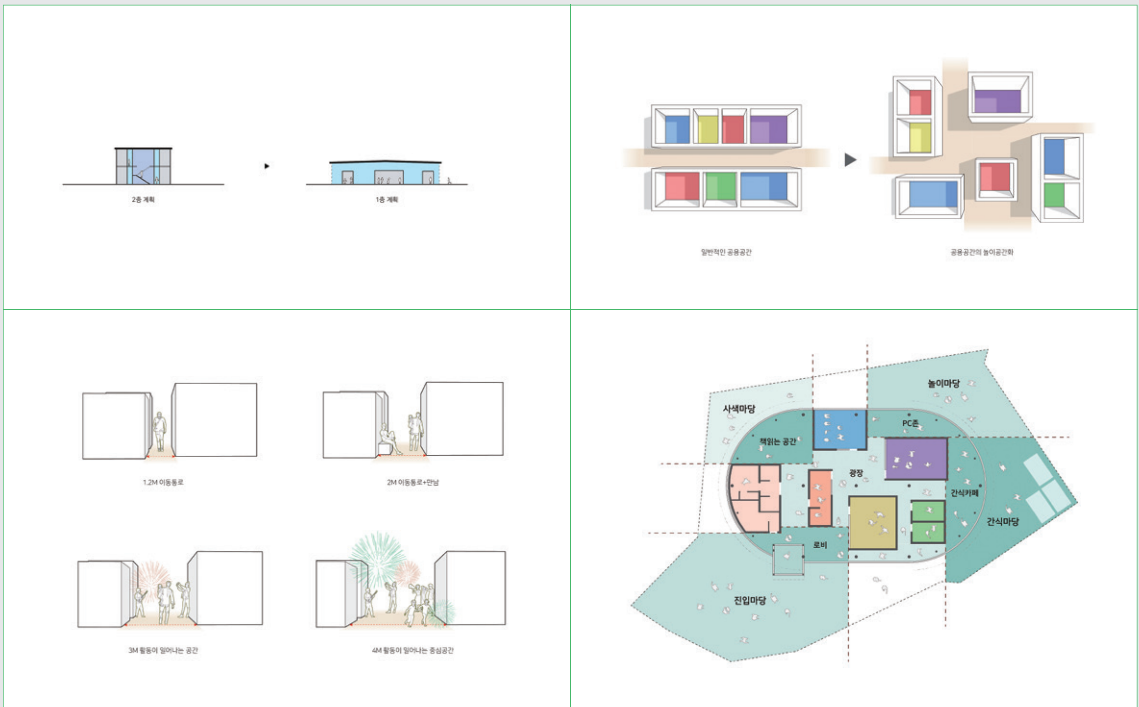
5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는 물리적 환경은 다행히도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깨끗하게 비워진 대상지를 에워싸고 있는 크고 작은 주변 건물들, 그 건물의 벽들이 만들



상 학교 앞에 위치한 수다박스 2호점  
하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마을



개념 이미지



개념 다이어그램

어 내는 공간은 아늑했다. 건물들 사이에 작은 길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은 높은 담벼락에 난 길고 좁은 숨구멍 같았다. 작은 규모의 사이트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면, 각각의 프로그램 매스를 개별적인 집으로 계획한다면, 채운동 속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 건축기획과 생각의 전환

도시재생사업 기획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2개 층의 소규모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주어진 면적으로 로비, 계단실과 복도,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나니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규모 건축물에서 공용 부분의 기능을 과하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효율적인 계획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였다. 건폐율을 전부 사용할 때, 그라운드 레벨에서 모든 기능을 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공용면적을 프로그램 사이의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층을 오르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계획하는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였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카페, 댄스연습실, 악기연습실, 노래방, 미디어제작실, 동아리방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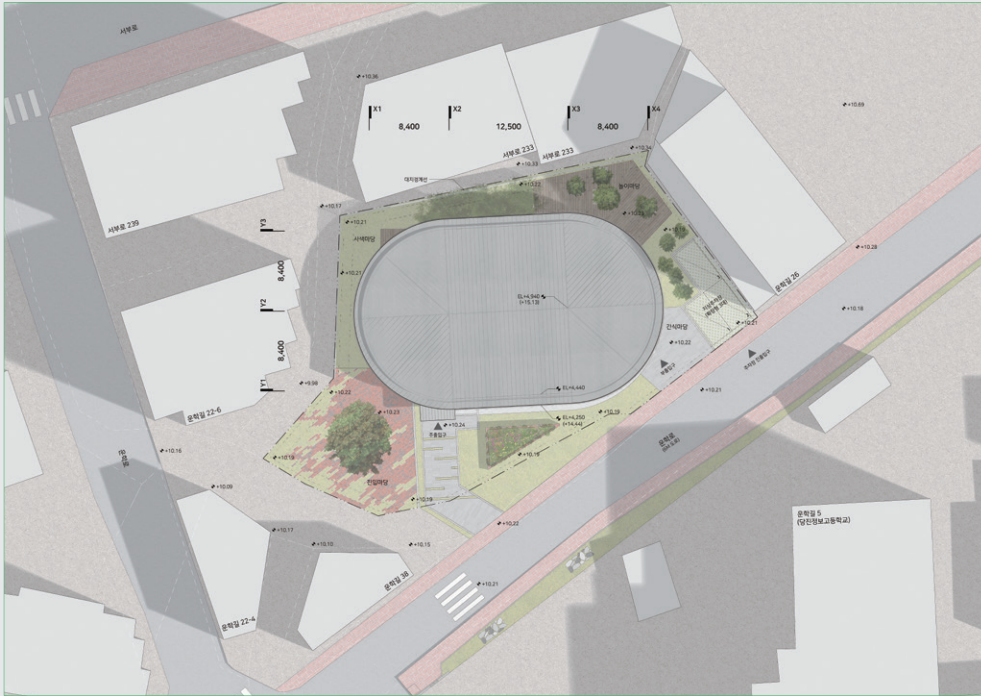
### 마을 - 마당

크고 작은 건물들이 대상지를 에워싸고 있었다. 프로그램 매스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사각형과 원, 타원의 매스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 타원형 매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방의 주변 건물이 모두 다르다 보니, 배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크기와 환경의 흥미로운 외부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횡단보도와 마주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만기는 마당, 아이들이 지날 때 들리기 좋은 위치의 마당, 열린 듯 감춰진 듯 애매한 마당 그리고 차폐가 가능한 조용한 마당의 계획이 가능하였다. 각각 진입마당, 간식마당, 놀이(게임)마당, 사색(독서)마당이 되었다. 놀이마당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아름답리나무에 해먹을 걸고 그곳에 누워 핸드폰과 휴대용 콘솔게임기를 지칠 때까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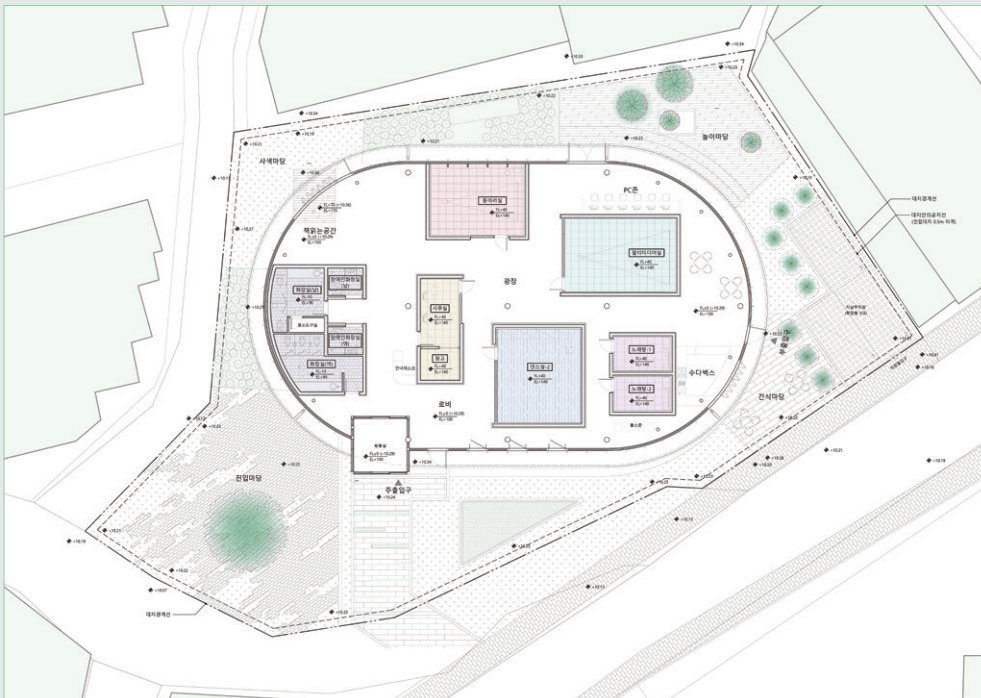
©안지연/도시건축연구소 리베라랩



상 목구조 시공 모습  
중 지붕 널 시공 모습  
하 내부 조적벽 시공 모습



배치도



평면도

## 마을 -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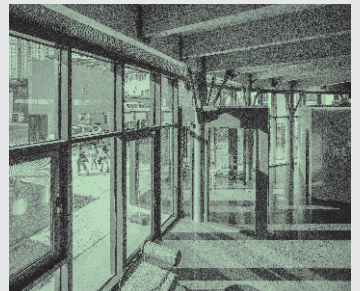
담장을 헐어 낸 뒤 보이는 주변 건물의 벽체와 그 사이 환경은 거칠고 험하였다. 대지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경계까지 옆집의 담이 짝 들어차 있던 시절에 지어진 주변 집들의 벽과 담장을 거부하려 애쓰기보다는 외부공간을 만들어 주는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구조물로 씌먹기로 마음먹었다. 한정된 공사비로 주변 건물과 사이 공간을 모두 새것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나는 경계, 식물형 담장 등 네 가지 다른 테마의 열린 담장을 계획하였다. 담장이 아니라 마당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을로 계속 확장되길 바라는 의도가 더 컸을 것이다.

## 마을 - 골목길(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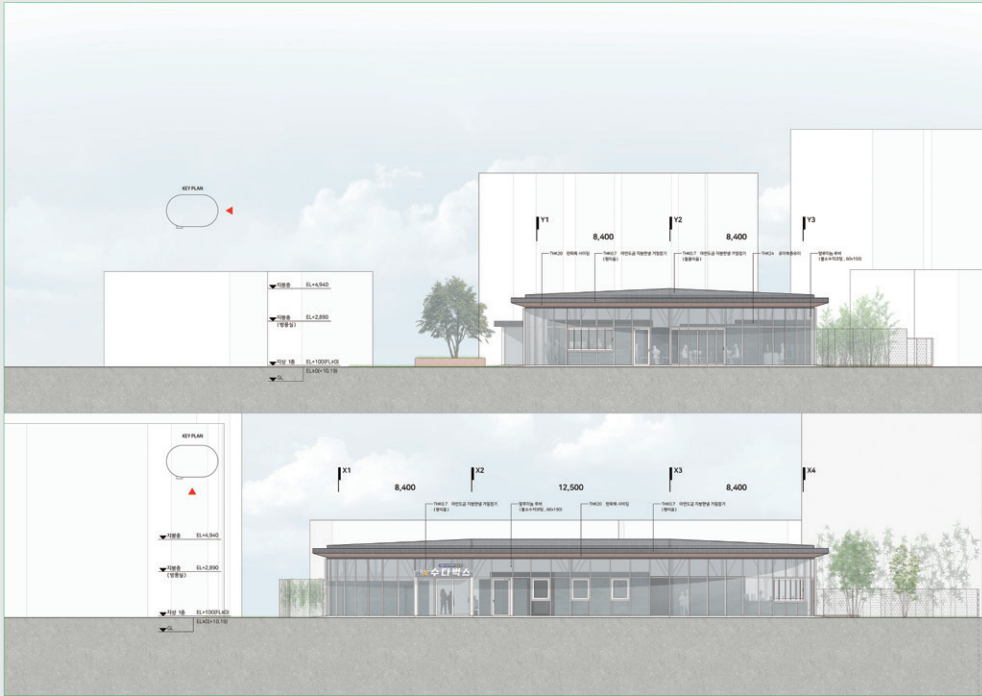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공간을 좋아하였나? 햇살 따스한 어느 겨울날 정신없이 뛰어놀던 골목길, 쉬는 시간에 한없이 시끌벅적한 복도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쓰라고 정의 내린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불확정적인 공간), 복도와 골목길을 더 좋아한다. 하고 싶은 놀이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을 언제나 좋아한다. 이에 2층 규모를 1층 규모의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확보된 여유로운 공용공간을 모두 골목길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폭의 골목길, 서로 다른 마감재와 높이의 건물(프로그램 매스)들은 풍성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 마을 -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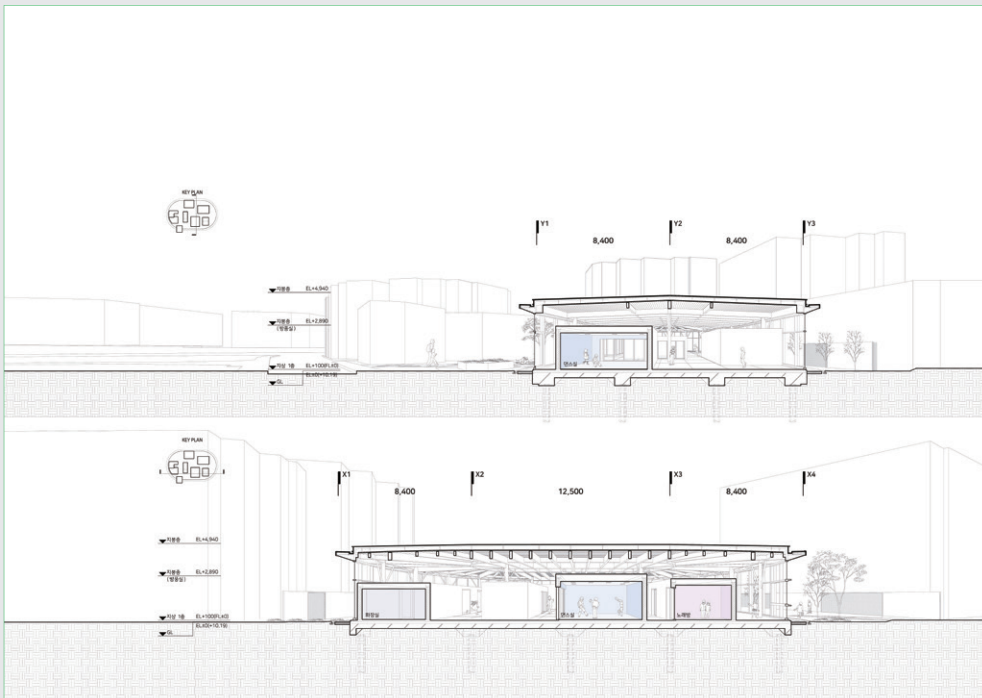
프로그램 박스 하나하나가 마을의 집이다. 하나의 큰 지붕 아래 프로그램 박스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우스-인-하우스의 건물 시스템으로 계획하였다. 집들은 크기, 높이, 마감재가 모두 다르다. 노래방 집, 댄스연습실 집이 따로따로 있는 셈이다. 집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닥거리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큰 지붕 아래를 가변적인 구조로 설계하여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지붕이 설치된 상태에



상 중목구조 지붕  
중 다양한 마감재의 내부공간  
하 개방적인 커튼월구조



입면도



단면도

서 평면 변경 요구사항이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미래의 언젠가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박스들이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을 - 경계(확장되는 공간)

프로그램 박스와 골목길, 골목길과 테마가 있는 네 개의 마당, 마당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동네(채운동) 사이에는 모두 경계가 존재한다. 계획에 따라 형성된 경계를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다. 때로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마을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확장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의 실험이다.

### 공공건축물의 가치

수다벽스는 그 이름처럼 하루 200여 명의 학생이 하교하면서 들르는 '참새방앗간'이 되었다. 프로그램 박스 사이 골목이 아이들로 분된다. 학원을 가기 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머물 곳이 생겼다. 주말이면 오전에는 수다벽스 1호점, 오후에는 2호점에 간다고 지인의 입을 통해 들었다. 채운동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생기가 넘친다.

청소년들의 발길이 닿는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공공건축물이 생겼다. 제각각의 모습을 가진 집(세부 프로그램 매스)들 사이에 골목이 있고, 골목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골목과 연결된 각각의 마당은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장난칠 수도 있다. 작은 프로젝트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만의 마을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삶을 섬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얻게 된 소박한 기쁨이다.

모든 지자체가 신규 사업을 꺼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진시는 수다벽스 3, 4, 5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활동 거점센터-청소년 아지트(청소년 수다벽스)가 전국으로 퍼져 나갈 기세다.



상 작은 공간의 활용  
중 활동이 일어나는 공용공간  
하 내부공간과 연결되는 외부마당